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교육 프로그램

이현송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북미전공 부교수

본 논문에서는 미국학을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이해했을 경우, 어떠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지를 검토했다. 먼저 지역학의 영역으로 미국학이 포함된다면 어떠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 타자를 보는 학문인 지역학과 미국에서의 미국학을 비교해 보면서 만일 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지역학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추론해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서 미국 지역학은 다학제적이며, 실용지향적인 학문의 모습을 띠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의 미국 지역학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경우 지역학의 성격에 걸맞게 교육에 있어서도 다학제적이며, 실용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학 교육 모델에 따라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려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교과과정과 운영방식 및 사회적 수요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하였다.

◆ 주제어: 미국학, 지역학, 미국 지역학, 다학제적 학문, 교육 프로그램

I. 머리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측면이건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건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미국 관련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미국이 세계질서를 지배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사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본 글은 미국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어떻게 적절히 대학교육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의 일부이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학문 분야와 교육 모델을 ‘미국 지역학’으로 설정해 보았다. 1920, 30년대 미국에서 출발한 미국학(American Studies)이 독립 분과학문으로 존재하나, 이러한 형태의 학문은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관심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뿐이다. 미국인이 자신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국학과 타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지역학을 대비한다면, 우리의 경우 미국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지역학’ 혹은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므로 다

음절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하며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한다.¹⁾ 미국에서 타자를 연구하는 지역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미국학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의 개념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규정된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이 한국의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대학에서 지역학이 교육되는 방식을 검토한 뒤, 한국에서 미국 지역학을 이 방식에 따라 구성하였을 경우 어떤 모습이 될지 고찰한다.

II. 미국 지역학의 개념 규정

미국에서 지역학과 미국학은 매우 흡사한 학문 배경을 갖고 있으나 둘 사이에는 상호간 학문적 연계를 거의 형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국학과 타자를 연구하는 학문인 지역학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리가 미국을 연구한다면 미국인이 타자를 연구하는 지역학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미국 지역학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의 학문 영역에서 지역학과 미국학이 실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역학의 한 영역인 ‘미국 지역학’의 개념을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미국에서 미국학과 지역학의 발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의 세 분야에서 두 학문을 비교하고, 이러한 논의의 연장으로서 미국 지역학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1. 미국학과 지역학의 발달 배경

미국학은 유럽의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1930년대 무렵 자신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구로부터 시발되었다(May, 1996). 이 당시 미국의 학문적 엘리트들은 미국을 유럽 문명의 열등한 연장으로 파악하여, 문학의 경우 영국문학을 정전으로 치고 미국 문학은 이러한 문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역사학의 경우에도 유럽 문명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전개에 치중할 뿐 미국 사회나 문화적인 발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920, 30년대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일군의 학자들이 유럽과 구별되는 미국만의 독특한 경험을 연구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패링턴(Vernon Louis Parrington)의 *Main Currents in American Thought*의 출간이후 미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물이 잇달아 나오고 하버드, 예일 등에서

1) 여기서 말하는 ‘지역학으로서 미국학’은 기존의 미국학(American Studies)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하기로 한다.

미국학 과목을 설치하면서 학문세계에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갔다.

미국학의 뿌리는 1920, 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에 전개된 냉전체제를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Davis, 1990). 나치와 같은 파시즘이나 제2차세계대전후에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세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서구문화의 보루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적인 것을 연구하는 미국학은 재정적 및 기타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1949년 *American Quarterly*라는 미국학 잡지가 발간되었으며, 1951년에는 전국적인 조직인 미국학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미국에서 지역학(Area Studies)의 본격적 발달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과거 선교사들이나 여행가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외국의 지역에 대한 산발적 관심은 유럽의 경우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 지역에 대한 지배의 필요 속에서 식민지 종주국을 중심으로 이 지역들에 대한 지식의 축적 노력으로 이어졌다(김경일, 1996). 이러한 관심은 1920, 30년대 무렵 미국의 대학들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조금씩 발돋움하기 시작하여 예일대, 미시간대 등에서 동양 혹은 남미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소와 학과를 개설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학은 전후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재정적 및 기타 제도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인에게 낯선 일본과 전쟁을 치루면서 미국은 유럽 이외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국가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됨을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전쟁 중 대학에서 미국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된 세계 주요 지역의 언어와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전후 시작된 냉전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에서 미국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축적할 필요를 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주요 대학은 전후 미국과 이해관계가 높은 지역인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 관한 지역학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학과 지역학은 미국의 대학에서 제도화되는 시기는 물론 발달 배경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눈을 돌려 과거 유럽에 대한 중속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미국학이 출발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현실적 필요에서 지역학이 시작되었다. 미국학이 미국 자신을 향한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소산이라면, 지역학 또한 미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관심에서 시도된 미국 밖의 타자를 향한 자신의 국가주의의 발로였다²⁾.

2. 미국학과 지역학의 연구 내용

미국학은 미국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는 하지만 미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역 학과는 매우 상이한 내용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학이 출발한 학문적 배경이 지역학과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관심 면에서 미국 자신에 대한 연구와 여타 나라에 대한 연구가 갖는 기본적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학은 주로 문학과 역사학을 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학문 목표에 대한 공통된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미국에는 미국인만의 독특한 정신(American Mind)이 있으며, 이 정신은 모든 미국인들이 공유하며, 이러한 미국 정신은 미국의 고전적인 문학작품이나 사상가들의 작품 속에서 잘 나타난다는 것 등이다(Wise, 1979). 이들은 미국 정신을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여겼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문분과들은 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학제적인 미국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전전의 미국학계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일부 있었으며 전후에도 국민성에 대한 연구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등이 있기는 했으나, 1950년대 상징심화 학파가 등장하면서 점차로 사회에 대한 관심은 탈색되고 문학 중심의 학문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미국학은 1960년대 중반에 본격적인 변화를 겪는다.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 소수 인종, 노동자, 동성연애자 등의 삶에 미국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그 결과 과거 미국은 동질적인 사회이며 미국 정신을 공유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종, 성, 계급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미국 사회의 다원주의적 요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통적인 정체성 개념이 부정되고, 미국 및 미국인이라는 말의 단일한 의미가 무너지게 되었다(정상준, 1998: 573). 여성학자들과 소수 인종·민족 출신의 학자들이 대거 미국학계에 참여하면서 여성 문제와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연구가 미국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백인 중심의 고급문화가 미국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가정이 허물어지면서 대중문화나 노동자의 생활을 연구하고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간의 갈등과 지배구조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Griffin and Tempenis, 2002). 미국 사회문화의 다양성에 관심이 옳아가면서 접근 방법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과거 동질

2) 미국학이 미국인의 민족주의의 소산이라는 점은 미국학 발전의 초기 시절이던 1950년 예일대 총장이던 Charles Seymour가 미국학 지원을 호소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발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인 자산을 이해하고 자유,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우리 기구들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 신뢰이다”라고 역설한 점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Davis, 1990: 355, 재인용).

적인 미국의 정신을 가정할 때와는 달리, 대중 문화와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에서 문학적 접근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들 중의 하나로 인식될 뿐이다.

동질적인 미국 및 미국인이라는 가정의 붕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되는 듯 보였던 미국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학계에서 여성문제나 인종 민족문제가 별도의 독립 학문 영역으로 급속히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학의 고유의 학문 영역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급기야 최근 미국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인종·민족 문제를 미국학의 중심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Washington, 1998).

1920, 30년대 미국의 대학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시기에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등에서 활동하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학이 시작되었다(김경일, 1998).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 제2차대전을 계기로 급속하게 발전한 지역학은 서구인들의 영향력 확장의 대상이 되는 제삼 세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지역학이라고 하면 주로 서구 문명에 포함되지 않는 서구인들에게 생소한 지역이 대상이 되었다. 즉 지역학이란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생성된 연구 분야로서, 지역학의 출생 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대체로 서구 문명지역 자신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³⁾.

지역학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성격보다는 실천적,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되고 발전되었으므로, 지역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엄밀한 학문적 정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학이 역사학자,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해 시발되었던 것은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기존 정보가 빈약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역사와 언어를 파악하는 것은 대상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대상 사회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하나의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인류학적 접근이 첫걸음으로서는 매우 적합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전후의 미국의 지역학은 냉전체제 속에서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학문이므로 과거보다는 현대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인문학보다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 주도해왔다.

한편 전후에 독립을 성취한 제삼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선진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지역학과는 달리 제삼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전략을 세우

3) 서구문명지역 즉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범주가 아닌 각 분과학문에서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외가 있다면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이 탈 공산화되는 과정을 연구한다거나, 혹은 유럽 공동체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지역 특수적인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학에서 보다는 개별 분과학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 위한 모델로 선진국을 연구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각자의 나라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선진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제삼세계에서 진행되는 선진국에 대한 지역학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며 선진국의 사회와 문화는 주변적인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선진국에 대한 지역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지역학은 선진국이 제삼세계를 연구하는 경우나 제삼세계가 선진국을 연구하는 경우나 연구자가 처한 국가의 맥락에서 각자의 이해를 반영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요약하면, 미국에서의 지역학과 미국학은 연구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학이 과거 문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한데서 출발하여 미국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류학/사회학적 탐색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의 지역학은 역사학, 인류학, 언어학, 및 정치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삼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한편 제삼세계에서 선진국을 연구하는 지역학은 선진국에서의 지역학과는 달리 정치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여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한다.

3. 미국학과 지역학의 연구 방법론

미국학과 지역학은 둘 다 종합적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다학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학제적 연구에 대하여 가해지는 비판의 하나인, 학문의 고유성을 주장할만한 연구 분야와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두 분야 모두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인문학적 지향이 주축을 이루는 미국학과 실용적 지향인 지역학은 학문 동기의 차이로 인하여 방법론의 문제에 대하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미국학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신화상징 학파가 주도하던 시절에 헨리 스미스(Henry Smith, 1957)와 레오 막스(Leo Marx, 1969)는 각각 그 당시 미국학의 방법론을 대표하는 두 논문을 발표한다. 그들은 미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인문학적인 그 중에서도 문학적 통찰력이 인간경험의 깊숙한 내면을 투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깊숙한 내면에 문화의 정수가 있으며 뛰어난 사상가와 작가에 의해 이것이 가장 일관성 있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전적인 문학 작품이 전체 문화의 가장 깊은 의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근원이라고 주장한다(정상준, 1998: 574-580).

1960년대 중반 이래 통합된 전체로서의 미국 문화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면 서 문학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전을 받게 된다. 소수의 고급 문학작품이 미국인의 삶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주장의 경험적 근거가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대신에 일반인들의 사회 현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화 현상에 관심이 분산되었다. 문자를 매개로 한 문화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여러 행위 속에 문화가 담겨있다는 생각에서 사회 현상과 구조에 대한 인류학적, 사회학적 접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 사회문화의 다양성에 눈뜨게 되면서 과거에 추구된 미국 문화에 대한 단일한 방법을 통한 총체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을 구성하는 상이한 사회문화 유형에 대한 개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요즘은 미국 학계에서는 인문학의 텍스트 분석, 역사적 사료 해석, 영화나 연극과 같은 예술 작품 분석, 경험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사회의 다양성과 갈등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Griffin and Tempenis, 2002).

지역학은 초기부터 다학제적 연구를 주창하면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미국학의 경우와는 달리 한동안 독자적 학문 분과로서 고유의 방법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김경일, 1998: 25-31). 지역학은 사회문화의 보편적 법칙에 대한 사회과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하는 데, 이 경우 개별 분과학문⁴⁾에서 접근하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 총체적 이해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지향하는 문학이나 역사학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 및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도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개별 지역에 대하여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각 분과학문에서 접근된 연구의 총합으로서만 지역학의 학제 간 연구가 의미를 갖는다면 실용적인 목적에는 기여할 것이나 고유 학문 분야로서의 지역학은 존립 기반이 미약하다.

하나의 학문 분과에 의한 접근만으로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크므로 개별 지역에 대한 실용적인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과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어떤 현상이나 사례에 대하여 학문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들을 상호 구분된 영역으로 파악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되어 발현되는 것이므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지식 생산 체계가 각 학문 분과에 의해 상호 엄격히 구분되어 각자 자신만의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서로 다른 학문 체계를 융합하여 새로운 이해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과 지역학의 독립 학문 분과로서의 지위는 매우 취약하며, 고유의 지역학 방법론이나 연구 분야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면, 인문학적 지향에서 출발한 미국학이나 사회과학적 접근에 치중하는 지역학이나 현재 방법론적인 면에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서 방법론을 구축하

4) 여기서 개별 분과학문은 고유의 주제와 방법론을 가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개별 학문 분야를 지칭한다. 이는 지역학, 노년학 등과 같이 다학제적 혹은 여러 학제가 융합한 학문(inter-disciplinary 혹은 multi-disciplinary)과 구별된다.

지 못하고 있다. 미국학의 경우 다양한 소재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 사회와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밝히려고 한다. 미국의 본질을 이해한다거나 혹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표를 표방한 것인 데, 미국학이 인문학적 접근에 조금 더 치중해 있다면, 미국의 지역학에서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⁵⁾.

4. 타자로서 미국 연구하기

지역학으로서 미국학(이후부터 미국 지역학으로 지칭함)이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연구하는 것이 타인의 입장에서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지역학이 기존의 개별 학문 분야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구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인이 자신을 연구할 때의 학문적 관심과 지향은 외국인이 미국을 연구할 때의 동기 및 관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미국을 연구한다면 그의 관심이 드물게는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잠재적 혹은 현재적 의도에서 출발한다. 타자로서 미국을 보다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미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미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타자로서 미국 문화를 연구한다면 미국 문화의 고유한 것을 발굴하려는 관심은, 미국 문화 전반 혹은 구체적인 문화 현상을 잘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⁶⁾.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지역학적 접근을 취할 때, 미국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과 함께 사회과학적 지식도 동시에 필요하다. 인간의 경험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된 현상이며, 분석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으므로 한 분야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들을 어느 정도 균형 잡히게 알아야만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능력이 한정된 연구자로서 중요 분야를 모두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개별 영역

5) 물론 미국학이 인문학적 접근을 선호한다던가, 지역학이 사회과학적 접근이 우세하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최근에 미국학의 연구 범위와 방법론이 다양화되면서 미국학과 지역학 간에 연구 방법론의 구분은 점차 무의미해 지는 듯하다.

6) 이는 외국인이 한국을 연구하려 할 때 한국의 고유한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혹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섭렵한 사람의 경우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협의의 ‘한국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나, 많은 경우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특수정보보다는 종합적인 이해에 목표를 둔 광의의 ‘한국학’에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다(은기수, 2002).

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것이나, 자신이 특히 관심이 있는 한두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합으로 생각된다. 즉 타자로서 미국을 연구할 때에는 한두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함께 여타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인문학에서 출발한 미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지식의 섭렵이 요구되며, 거꾸로 사회과학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두 가지 접근 모두 미국 지역학을 하는 즉 미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타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 학문과 지역학 간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미국에 대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깊이 있는 지식과는 독립된 지역학 분야의 지식을 거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지역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지역에 대한 여러 분과학문의 지식을 종합하는 것이며, 실제 지역학 분야에 관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모두 개별 분과학문에서 훈련을 받았고 자신의 학문 활동에 대한 정체성을 그 곳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학이라고 할 때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관심과 다학제적 접근 및 비교 사회문화적 접근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요컨대 학문 분야로서 지역학은 다학제적 영역으로서 개별 지역에 대하여 여러 분과 학문들의 공통분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다른 학문 분야와 독립된 고유의 영역과 방법론을 가진 개념으로 지역학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자의 입장에서든 지역학은 개별 분과 학문과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문학자이면서 미국학자이며, 인류학자이면서 미국학자이며, 정치학자이면서 미국학자라는 개념 설정이다. 이는 다른 다학제적 학문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근래에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노년학(Gerontology)의 경우, 노인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하며 노인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이 경우 노년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고 생리학자이고 사회학자라는 복합적인 학문 정체성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지역학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학문이었듯이, 외국에서 미국에 대한 지역학의 수요자는 미국인이 아닌 자국민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미국의 미국학과는 학문의 목적을 달리한다. 타자로서 미국의 연구는 보다 더 다학제적 연구가 되어야 하며, 비교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오는 통찰력이 들어간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외국에서 미국에 대하여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다 (Robin, 1993; Desmond and Dominguez, 1996; Winks, 1988; Morris, 1998; Ickstadt, 2002), 실제 외국에서 하는 미국에 대한 연구는 미국학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미국의 미국학에서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다학제적 연구로서의 미국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경향은 유럽 문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아베, 1998; Zhu, 1987;

Sakakibara, 1988; Ford and Haulman, 1996).

이 경우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지역학적 접근이 별도의 학문 영역으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지역학의 기본적 성격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 지역학의 발생 배경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계 지배를 위한 실용적 목적에 기여하는 데 있었듯이, 미국 지역학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대한 실용적 목적에 기여하는 데에서 학문 분과로서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 관하여 여러 학문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왔다(천승걸·김성곤, 1987; 김경일, 1998). 우리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개별 분과학문의 순수 학술 지식 탐구에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한 우리의 잠재적, 현재적 이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실용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미국 학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 미국 지역학이 우리 학문세계에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III.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 모색

앞 절에서 미국 지역학은 어떤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미국 지역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다학제적 학문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자국인의 이해와 관련된 실용적 학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의 미국 지역학을 교육 받은 학생들은 미국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서 학자로서보다는 실무에 종사하는 미국 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할 것이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미국 지역학의 개념에 근거하여, 어떻게 대학에서 이를 교육하는 것이 적합할지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역학 교육 모델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역학 교육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지향하는 다학제적 학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개설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본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우선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⁷⁾

7)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미국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미국학과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습득 능력 미흡으로 인하여 미국의 사정에 대한 종합적 이해보다는 영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남균, 2001). 한편 지난 수년간 활성화된 국제 대학원의 경우 교과과정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경제, 통상, 정치 외교 등의 일부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라 종합적 이해를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지역대학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

1.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⁸⁾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과과정은 대학에 따라 또 연구 대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지역학 교육의 모델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지역학 교과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데, 그것은 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점이다. 학교에 따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는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례를 보아도 매우 다양한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음에서는 미국 대학의 지역학 교육에서 대표적인 세 사례를 통해 지역학 교육 모델의 특성을 살펴본다. 하나는 미시간 대학교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Asian Studies)이며,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Regional Studies - Russia,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이며, 세 번째는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Latin American Studies) 이다⁹⁾. 이 세 개 지역은 미국에서 지역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며, 각각의 대학은 각 지역학의 대표주자 격인 사례이다. 미국의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학부에서는 교양교육과 약간의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정도인 반면, 학과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교과과정은 대학원에서야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대학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학부의 교과과정에 대하여 거론한다.¹⁰⁾

먼저 세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공통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매우 다양한 메뉴의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의 관심에 따라 상당한 선택의 폭을 허용한다. 둘째는 지역 언어에 숙달하는 것이 학위 취득의 필수 요건이나, 교과과정에서는 언어 교육보다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는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외가 있기는 하나

괄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목적에 근접하나, 아직 목적에 부합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 본 논문에 제시되는 사례는 각 대학의 프로그램 안내자료, 대학 관계자와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수학하고 있는 대학원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텍사스 대학 사회학과의 Gideon Sjoberg 교수와 동 대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이상현 씨의 도움이 컸음을 여기에서 밝힌다.

9) 미국 대학의 학과명에 ‘Studies’ 가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번역할지 어려움이 있다. 미국 대학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Studies’ 혹은 ‘Program’ 은 독립 분과학문으로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비교적 새로운 학문 영역을 지칭한다. 이는 학문의 성격에서만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 교과과정의 구성, 교원 인사, 학과 재정 등 모든 면에서 ‘Department’ 의 지위 보다 낮은 독립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구’ 혹은 경우에 따라 ‘~학’ 과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학’ 으로 통일한다.

10) 학부와 대학원의 프로그램의 차이는 공부하는 정도와 수준의 차이일 뿐 프로그램 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즉 대학원 프로그램의 지역학 교육 방식이 학부 지역학 전공에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는 듯 하다.

대체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독립 과정은 개설하고 있지 않다. 넷째는 경영, 저널리즘, 법, 공공정책 등 전문대학원과 연계 전공을 권장하며, 실무적인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째는 지역학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기초적 성격의 교과목을 제외하고 심화 교과목은 사회과학 중심의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혹은 해당 분과 학과에 위탁하고 있다. 여섯째는 모든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전문연구소를 모태로 하여 출발했으며, 현재도 연구소와의 밀접한 연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각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미시간 대학교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지역학이 제도화되던 초기인 1930년대에 설립된 ‘아시아 언어와 문화’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학과로부터 근래에 떨어져 나온 지역학 프로그램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시간 대학교의 학과 분류에서 ‘아시아 언어와 문화’ 프로그램은 인문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음에 비하여,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세 개의 개별지역 - 중국, 일본, 남 및 남서아시아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지역이 서로 매우 상이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석사 과정 학생들은 이 세 지역 중의 하나를 관심 지역으로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택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과정을 보면, 각 지역과 관련하여 역사, 문학, 철학, 종교학, 예술 등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과목들과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사회과학 과목들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각 지역에 대한 역사를 개괄하는 과목과, 다학제적인 성격의 지역에 대한 기초 세미나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외에는 각 분과학문에서 개설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의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이 조직되어 있다. 프로그램 재학 3년차까지 해당 지역 언어에 대한 능력 시험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과 과정에서는 언어 습득 관련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의 경우 경영학 특히 MBA과정, 공공정책, 사회사업, 도시계획, 공공보건 등과의 복수 학위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복수 학위과정은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거나, 혹은 개별 분과학문에서 출발하는 경우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언어와 문화’ 학과의 경우 언어, 문학, 철학, 종교의 영역이 고루 배치된 교과목 구성을 보인다. 또한 이 학과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학’의 경우와 유사하게, 언어 습득과 관련된 교과목보다는 언어학과 문화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졸업요건으로 언어 능력 시험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은 전후의 냉전 시대에 미국 정부의 위탁에 의한 동구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성장한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도 이 프로그

램의 교과과정을 보면 미국의 동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관심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어와 지역의 역사, 문학, 정치, 경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들이 공공서비스, 기업 경영, 언론계, 및 학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프로그램 소개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수진 및 교과목 구성에서도 러시아 역사, 러시아어 및 문학, 지역 정치, 지역 경제가 주종을 이룰 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과도하게 인문학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제한하며, 사회과학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교과 규정을 갖고 있다. 지역에 대한 기초 과목만을 이 프로그램에서 열며, 분과 학문으로부터 개설된 다양한 과목들을 이 프로그램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미시간 대학의 경우와 동일하다.

미시간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위 취득 요건으로 지역 언어 능력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언어 습득과 관련된 학점 이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교과목이 선택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게 두고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 단독 학위 과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어 및 문학, 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과정을 하면 이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음을 밝히는 정도이다.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앞의 두 사례보다도 더 다양한 다학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지역학 프로그램 자체에서 개설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개괄적인 사회문화적 지식 및 최근의 쟁점을 개관하는 몇 개의 과목에 불과하며, 각 분과 학문에서 개설하는 라틴아메리카 관련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앞의 사례와 같다. 그러나 앞의 사례와 달리 전공으로 인정하는 관련 과목의 학문 영역은 거의 인문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주요 관련 분과 학문과 교과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학기 분과 학문의 관련 교과과목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앞의 ‘아시아 지역학’이나 혹은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과 비교해 특이한 점은 인문학 중에서 역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나 언어와 문학에 대한 비중이 약하며 인류학이나 사회학 및 경제 경영 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 또한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이해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¹¹⁾.

텍사스 대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여타 지역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다학제적인 연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입학 사정에서부터 교과과목 구성, 및 논문을 쓰는 단

11) 또한 이 지역에 스페인계 인구가 많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스페인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집중도가 높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스페인계 언어와 문화의 영역을 덜 다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에 이르기까지 다학제적 연구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입학 사정을 위한 에세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왜 두개이상의 전공에 걸치는 연구를 하는 것이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한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의 제1전공과 두개의 제2전공을 택하여 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도 두개 이상의 전공에 걸쳐 지식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논문의 통과과정에서도 두개 이상의 전공 교수진이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학제적 연구를 강제한다는 점 이외에는 학생이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 인문학이건 혹은 사회과학이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및 방법론은 순전히 학생과 학생이 구성한 지도교수진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방하고 있다.

다른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해당 지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과 학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의 통일성 면에서 많은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별로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교과목 구성에 다양성과 일관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한 분과 학문에 집중하면서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과, 세 개의 서로 상이한 분야에 고루 노력을 분산하면서 논문 대신 각 분야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학생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개별 학문 분과의 전문성을 강조한 과정이라면, 후자는 다양한 지식 습득을 강조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그램 역시 경영학, 법학과 연계전공을 권장하는 점에서 실용지향을 읽을 수 있다. 스페인어의 경우 졸업을 위한 언어능력 시험 통과를 요구할 뿐, 교과과정에 과목 이수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다.

지역학 학부 과정의 경우 대학원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따라 또 대상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위에 예를 든 하버드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이나 미시간 대학의 ‘아시아 지역학’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 과정은 없으며, 단지 ‘슬라브 언어 및 문화’이나 ‘아시아 언어 및 문화’ 학과가 학부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미시간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프로그램(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의 경우나 혹은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경우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데, 두 과정은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의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프로그램의 경우 전공 학생들이 지역의 폭넓은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언어, 역사, 경제, 정치, 지리, 문화, 국제관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텍사스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경우 대학원 과정과 흡사하게,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일반 사정에 관한 기초과목에 관하여서만 최소한의 이수 학점(15학점)을 요구하며, 나머지는 인류학, 예술사, 경영, 경제, 지리, 정치, 역사, 사회학,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의 한 분야를 선택하여 이 분야에서 개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관련 과목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지역학 전공 학사 졸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역 언어의 경우 지역관련 과목을 듣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요구되며, 본격적으로 언어를 공부하려 할 경우 스페인어 혹은 포르투갈어 자체를 집중 영역 (areas of concentration)으로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의 지역학 교육 모델을 요약하면, 지역학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학의 개념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발견한다. 대학간 대상 지역간 차이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공통점이 두드러지게 공유되고 있다.

2.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 탐색

미국 대학의 지역학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 대학의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을 설계하려고 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교과목 구성은 물론,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성, 타학문 분야와의 관계, 사회적 수요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관심사이다.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에서 간단히 검토한다.¹²⁾

먼저 미국 지역학의 모델 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에 대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전반의 포괄적 지식을 지닌 실무 지향의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서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미국 지역학이 다학제적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이해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공통기초 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더하여 다양한 개별 분야에서 개설되는 해당 지역관련 과목의 선택을 넓히도록 한다. 다른 하나는 영어 구사 능력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습득을 목표로 한 과목은 지역의 이해를 깊이 하는 과목과는 별도로 관리한다¹³⁾. 지역학 전공 학생들의 경우 졸업 시까지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 능력 평가시험을 통과하도록 한다.

12) 한국에서의 미국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여러 관계 교육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필자의 미국지역학 대학원 및 학부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이 반영되었음은 물론, 서울대 정상준 교수, 평택대 김남균 교수, 한국의 국어대학 성경준 교수의 도움이 컸다.

13) 실제 영어 습득과 지역의 이해를 심화한다는 목표는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될 수 없다. 필자가 지역학 수업을 듣는 대학원 학생들과 면담 결과 그들이 지역학 교과목을 듣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어 실력의 심화를 들고 있다. 또한 지역학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영어 실력의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학생들의 경우이다. 지역학 교과목의 원어 교재와 원어 강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영어 습득을 위한 낮은 단계의 교과목이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

심 화	인문학		사회과학
	문학, 철학, 종교, 문화예술	역사(심화), 지리(심화) 인류/사회학	정치, 외교, 미디어, 경제, 경영, 법
기 초	지역기초	역사, 지리, 사회문화 일반	
	언어	영어	

미국 지역학 교과목의 구성은 지역 기초 교과목과 지역 심화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각 범주의 교과목 구성은 그림과 같다. 기초 교과목은 다시 언어 기초와 지역 기초로 나뉜다. 언어 기초는 영어 습득을 위한 과목으로, 지역기초는 미국의 지리와 역사 및 사회문화 일반에 관한 입문 과목으로 한다. 지역 심화 교과목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분야에 걸쳐 미국과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기초과목들은 학부 1, 2학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각 분과 과목의 지역 심화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기초적 소양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학부 3, 4학년에 개설되는 지역 심화 교과목의 경우, 미시간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주요 과목들을 골고루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과, 텍사스대학 학부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인문학 혹은 사회과학의 한 전공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전공의 과목은 부수적으로만 듣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저자의 견해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에는 학문간 성격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크게 두 집단으로 묶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양쪽에 걸치는 역사, 지리, 인류학, 사회학 분야를 공통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먼저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집중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공통의 영역은 양 분야 모두 듣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개별 학과의 특성화의 맥락에서건 혹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으로건 두 관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뒤, 각 관심 분야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골고루 듣도록 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과목들은 최소한만 듣도록 하는 절충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 예컨대 미국 지역학의 인문학 분야를 심화 분야로 선택한 경우 미국의 문학, 사상, 종교, 문화예술 과목들을 골고루 듣도록 하고, 사회과학의 과목은 최소한으로만 듣도록 한다. 거꾸로 미국 지역학의 사회과학 분야를 심화분야로 선택한 경우 미국의 정치, 미디어, 경제, 경영, 법, 언론, 국제관계의 과목들을 골고루 듣는 대신 인문학의 과목은 최소한으로만 듣도록 한다. 양 분야 모두 공통의 영역에 속하는 미국의 역사나 인문 지리, 문화와 사회에 관한 과목을 심화 분야 과목들과 함께 이수하도록 한다.

심화분야의 경우 단순히 기존의 각 학문 분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찾아가 듣도록 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다학제적 접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학 프로그램이 주관이 되어 다학제적 연계 과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지리와 역사’, ‘미국의 성, 인종, 다문화주의’, ‘미국 문학과 사상의 흐름’, ‘미국인의 종교와 가치관’, ‘미국 언론과 정치’, ‘미국 문화와 세계화’, ‘미국 사회와 정보화’, ‘미국 경제와 기업’, ‘미국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미국’, 등과 같이 학문간 연계과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학의 주요 특징인 비교 문화적 접근을 강조하여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각 영역에서 미국과 세계 혹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교과목을 풍부하게 개설하여 학생들의 비교 사회문화적 사고력이 배양되도록 한다.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의 성패는 이러한 다학제적 혹은 학제간 및 비교 사회문화적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교과목 구성은 필연적으로 타학문 분야와의 관계 설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분과 학문 분야의 배타성이 심한 학문 풍토에서 다학제적 학문 분야의 존립 기반은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학생들의 소속 분야에 대한 정체성에서도 동일하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지역학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들은 개별 분과학문에 일차적인 정체성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분과학문과의 연계 전공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학의 성격 자체가 다학제적이므로 교수 및 학생들의 소속 또한 다학제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 즉 교수의 경우에도 분과학문과 연계하여 소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미국 지역학 전공학생은 물론 타 분과 학문의 학생들도 서로 간에 영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지역학이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미국에 대해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미국에 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토록 하는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어느 한 분야에서도 심화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대하여 다양하지만 피상적 수준의 지식만을 습득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서 반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지역학의 기본적인 존립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행위란 학문적으로는 인문학, 사회과학의 개별 영역이 상호 구분된 측면으로 파악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되어 발현되는 것이므로, 한 측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에서는 분석을 거듭해 가면서 학문

분과 간에 분업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전문화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대상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예컨대 미국 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며, 미국 통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경제나 통상 지식만으로는 부적절하다. 실무 전문가로서는 물론이고, 학자로서 어느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종합적인 이해는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의 반론은, 한국의 대학 현실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인 요구는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 대학의 각 분과학문에서는 주로 개별 분과의 보편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미국 사례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와 문화를 공부하거나 혹은 정치경제를 공부할 기회는 개별 분과학문 내에서는 매우 적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미국의 역사, 미국인의 사상이나 종교 활동, 미국 문화, 미국 사회, 미국 정치, 미국 경제와 기업, 미국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역사학과, 철학과, 인류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경제 경영학과, 법학과 등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식은 절실히 필요하며, 실제 대학에서도 미국관련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 구사 능력과 함께 미국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갖춘 미국 지역 전문가는 개별 분과 학문의 전문 지식으로 훈련 받은 사람과 함께, 우리 사회가 미국과 상대하여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지역학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한다면, 미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에 매우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컨대 미국 지역학은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에 더하여 미국의 미국학에서는 소홀히 취급하는 사회과학의 분야, 즉 정치, 경제, 국제관계, 법, 경영 등을 아우르는 실용적 다학제적 프로그램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¹⁴⁾.

마지막 검토사항은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과성면에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중 어디에 더 적합할까 하는 문제이다. 한국 대학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학부 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기초지식이 미

14) 우리나라에서 미국 지역학이 앞의 교과목 틀에서 제시한 심화분야 중 사회과학 영역과 인문학 영역간에 상대적 비중을 어떻게 두는 것이 적당할지 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연구를 요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지역학의 특성상 사회과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적 관심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심이 지역학 분과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 또한 적지 않다.

흡한 상황에서 언어 교육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개별 분과 학문에서 교육시키는 분석적 지식과 연구 방법에 생소한 학생들에게 여러 분과를 포괄하면서 종합적 지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경우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이는 데 지역학 프로그램이 효과적일지 의심스럽다.¹⁵⁾ 교수 요원을 조달하는 데에서도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 과정의 경우 분과 학문 간의 장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학부 과정에서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미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습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학부 과정이라면 앞의 미국 지역학 교육 모델에서 제시한 지역 기초 과목과 심화 공통 과목을 배우는 정도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정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지역학 프로그램은 실용성은 물론,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도 원래의 취지 즉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에서 전공한 분과 학문의 기초적 훈련 위에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교과목들을 통해 미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이 경우에 프로그램의 지향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보다는 실무 전문가의 양성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층도 전통적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실무 경험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미국 지역학의 교육 모델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미국학을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이해했을 경우, 어떠한 학문의 성격을 갖게 되며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지를 검토했다. 먼저 지역학의 영역으로 미국학이 포함된다면 어떠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학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학문이므로 지역학으로서의 미국학은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타자를 보는 학문인 지역학과 미국에서의 미국학을 비교해 보면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하여 이러한 지역학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추론해 보았다. 이러한 추론에서 미국 지역학은 다학제적이며, 실용지향적인 학문의 모습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15)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여섯 개 대학교(계명대, 대진대, 카톨릭대, 평택대, 부경대, 탐라대)의 미국학과 교수들에 따르면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미국 지역학의 개념 설정을 한 다음 이러한 학문 영역이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과목 구성과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경우 지역학 학문의 성격에 걸맞게 교육에 있어서도 다학제적이며, 실용 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학 교육 모델에 따라 미국 지역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려보았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교과과정과 운영방식 및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검토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 지역학 모델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를 둘러보면 대체로 미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지역학의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실용적 관심에서 나온 연구와 교육일 뿐 대학에서 독자적 학문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문학자가 미국 문학을 연구하고 교수하는 활동과 사회학자가 미국 사회를 연구하고 교수하는 활동과 같이 각 분과학문에서 미국에 관한 연구와 교수를 모아놓은 것이 현재의 미국 지역학의 모습이다. 현재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미국학이나 혹은 국제대학원의 미국지역 전공이 이러한 미국 지역학의 개념에 근접한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는 크게 미흡하며 교과과정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힌다. 본 연구는 미국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인 관계로 학문 분야의 개념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국 지역학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비서구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지역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매우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도, 본 고에서 그린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 적합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관련 교육자들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수집하는 정도였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과 연관된 분야의 교육 실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김경일. 1996.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국제지역연구』 4권 1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pp.1-21.
- _____. 1998.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

- 론』. 서울: 문화과학사. pp.17-49.
- 김남균. 2001. 「미국학에서 본 영어 교육」. 『미국학 연구와 강의의 방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북미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4월 27일.
- 백창재. 1998. 「국내 미국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75-293.
- 아베 유미코. 1998. 「일본의 지역연구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2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연구센터. p3-21
- 은기수. 2002. 「미국의 자국학 연구, 세계화 속에서 한국학 연구의 가능성」. 『정신문화연구』 25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55-173.
- 이상섭. 1998. 「지역연구로서의 문학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331-348
- 이홍중. 2001. 「지역연구로서의 미국정치 연구의 영역과 과제」. 『미국학논집』 35권 1호. pp.273-289.
- 정상준. 1998. 「미국학의 방법론과 실제」.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569-586.
- 천승걸, 김성근. 1987. 「한국 대학에서의 미국학 학위과정 개설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학』 제 10집.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pp.85-119.
- 최 협. 1997. 「인류학과 지역연구」. 최협 편.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출판사. pp.19-34.
- Davis, Allen F. 1990. "The Politics of American Studies." *American Quarterly* 42(3). pp.353-374.
- Desmond, Jane C. and Virginia R. Dominguez. 1996. "Resituating American Studies in a Critical Internationalism." *American Quarterly* 48(3). pp. 475-490.
- Ford, Stacilee and Clyde Haulman. 1996. "To Touch the Trends, Internationalizing American Studies: Perspectives from Hong Kong and Asia."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36(2). pp.42-58.
- Griffin, Larry J. and Maria Tempenis. 2002. "Class,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Quarterly." *American Quarterly* 54(1). pp.67-99.
- Ickstadt, Heinz. 2002. "American Stud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American Quarterly* 54(4). pp.543-562.
- Marx, Leo. 1969. "American Studies - A Defense of an Unscientific Method." *New Literary History* 1. pp.75-90.
- May, Elaine Taylor. 1996. "The Radical Roots of American Studies: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American Quarterly* 48(2). pp.179-200.

- Moor, Elizabeth R. 2003. "The Twain shall meet: American Studies in post-soviet Russia."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40(1). pp. 82-100.
- Morris, John T. 1998. "Introducing master's students to area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skills approach."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1(2). pp.204-209.
- Robin, Ron. 1993. "The Outsider as Marginal Scholar: Reflections on the Past, the Foreign and Comparative Studies in American History."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31(1). pp.117-125.
- Sakakibara, Yasuo. 1988. "American Studies in Japan: An Economist's Point of View."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6(1). pp.31-40.
- Smith, Henry. 1957. "Can 'American Studies' Develop a Method?" *American Quarterly* 9. pp.197-208.
- Washington, Mary Helen. 1998. "Disturbing the Peace: What Happens to American Studies If You Put African American Studies at the Center?" *American Quarterly* 50(1). pp.1-23.
- Winks, Robin W. 1988. "At Home Abroad/ Abroad at Home."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6(1). pp.72-80.
- Wise, Gene. 1979. "Paradigm Dramas in American Studies: A Cultural and Institutional History of the Movement." *American Quarterly* 31. pp.293-337.
- Zhu, Yongtao. 1987. "American Studies in China." *American Studies International* 25(2). pp.3-71.
- <http://www.rackham.umich.edu/programs/>
<http://www.gsas.harvard.edu/programs/>
<http://www.utexas.edu/cola/ililas/students/>

Concept and Educational Program of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Lee, Hyun-Song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ddresses what the concept and educational program of a discipline will be when American Studies is approached as an academic discipline under the area studies discipline. In order to capture the concept of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I made a comparison of various aspects of area studies and American Studies as practiced in American universities with regard to each universities' disciplinary developments, and the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the program. On the bases of these comparisons, I infer that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should have multi-or inter-disciplinary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Secondly, I drew out a pilot educational program that corresponds to an academic discipline of suggested form. For this purpose, the curricula of area studies in various American universities that were confirmed to be built on the principle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pragmatic orientation were analyzed. A blueprint of educational curriculum was presented for American Studies as an area studies by referring to that of area studies in U.S. universities. Finally, the possibilities of such a program and related issues were widely discussed.

Keywords: American Studies, Area Studies,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